“종교화합 역사 현장 주어사, 원형복원 시급”



주어사지 원형복원 기도 입재법회에 참여한 50여 불자들이 법회 이후 원형복원을 추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흩어진 주어사의 흔적들

가톨릭계는 지난 1973년 천진암과 함께 가톨릭 강학회가 열린 장소로 지목되던 경기도 여주군 주어사지에서 해운당대사의징지비(海雲堂大師義澄之碑)를 발견해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나루 · 절두산 유적지’로 옮겼다. 비석 전면에 ‘해운당대사의징지비(海雲堂大師義澄之碑)’라 새겨진 이 비는 1689년 해운당 의징스님의 상좌 수견천심스님이 세운 것이다.

가톨릭 측은 이 비석에 대해 당시 비가 발견된 논 주인이 ‘기증’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의징스님 비와 같은 발견문화재의 경우 일주일 내에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톨릭 측은 신고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뜻대로 타종교 유물을 옮겨온 것이다. 이와 함께 의징 스님의 부도탑은 여주시청 향토사료관에 보관돼 있다.



천주교 절두산 유적지에 있는 해운당 의징스님비(사진왼쪽)와 여주시청 향토사료관에 있는 부도탑

용주사 신도회 7월 6일 주어사 원형복원 발원 1천일기도 입재

스님들 천주학자 보호하다 참변
천진암은 불교색채 모두 지워져
원형복원까지 1000일 기도 진행

“주어사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종교평화 이룩하자! 주어사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종교평화 이룩하자!”

여주의 한 깊은 산 속에서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조선 후기 천주교를 공부하던 이들을 숨겨주었다 폐사한 주어사의 원형복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것이다.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교구신도회(신도회장 민학기)는 7월 6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주어사 원형복원 발원 기도’에 입재했다. 100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기도는 불자들이 상주해 올리며 조계종 제2교구 산하 60여 사찰이 동참해 매주 1회씩 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 여주군 주어사지(走魚寺址)는 한국 근대종교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 발원지인 천진암에 강학회가 열리기 전까지 주어사가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주어사가 좁아 강학회를 진행하기 불편하자 인근의 천진암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가톨릭 측은 밝히고 있다.

주어사는 조선 후기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을 지켜 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아픔이 있다. 스님들이 천주학자들을 포용한 종교화합의 장소임에도 그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천진암에도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도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죄목으로 천주학자들은 물론이고 10여명의 스님들도 함께 참수당하고, 절도 폐사됐지만 더 이상 불교의 흔적은 없다. 성역개발사업으로 대웅전 터에는 주어사에서 공부했던 천주교 창립선조 5명의 무덤이 이장됐으며 암자를 표시하는 ‘암’(庵)도 ‘암’(菴)으로 바꿔쓰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이런 문제에 통감한 수원 용주사 신도들과 여주 신륵사, 영월암, 수원 수원사, 화성 신흥사, 의왕 용화사 등지의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스님으로는 용주사 문화원장 인해 스님과 신륵사 총무 보경 스님이 함께 했다.

주어사가 위치한 곳은 깊은 산속으로 조선 후기 당시 천주학자들이 숨어있을 만큼 오지다. 이날 기도 입재에 참가한 50여 불자들은 직접 떡과 과일, 각종 기도용품 등을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 주어사로 향했다.

이들은 지금은 푯말만 남아있는 주어사지에서 향을 사르며 정성스럽게 천수경 독송으로 발원기도를 올렸다. 이어 삼귀의례, 권청, 반야심경 봉독 등 불교의례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법회 이후 참가 불자들은 발원문 낭독으로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졌다. 발원문은 수원 수원사 거사회의 이현상 부회장이 낭독했다.

“조정의 탄압으로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천주학자들을 보듬어 안은 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는 종교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처님의 원대한 원력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어사 원형복원을 발원하오니 제불보살님의 가피 있으소서.”

불자들은 이어 주어사 원형복원으로 △천진암 천주교 성지화 과정에서 쫓겨난 4개사찰의 상처 치유 △부처님 가르침의 포용성 알릴 기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사회 저변 확대 △불교와 천주교 화합의 계기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주사 인해 스님은 “천주교가 서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개혁하고자 한 정조 대왕의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며 “당시 서학을 하는 학자들을 보듬어 안은 불교계의 움직임은 이러한 개혁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인해 스님은 또 “서학자들을 있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죽음을 당한 선배 스님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천주교 성지로만 개발을 추진해온 여주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시는 2009년 지표 및 학술조사를 진행해 주어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천주교 강학이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여주시는 사지의 의미를 알려 명소로 만들고자 2012년 7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앞서 2011년에는 천주교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길도 재정비했다.

불자들은 “주어사는 불교와 천주교가 역사 속에서 인연을 쌓은 곳임에도 천주교 성지로 개발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천주교 측이 인근 천진암 성지조성 과정에서 서울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에 옮긴 주어사 해운당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부도탑도 주어사지로 다시 옮겨와야 한다”고 했다.

손정국 신륵사 신도회장은 “천주교계에서 주어사지 인근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황파악을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 신도회장은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주어사지 복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신부님 세 명도 참여하고 있다”며 가톨릭계와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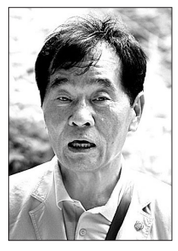
한편, 이에 대해 여주시 문화관광과는 “주어사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사업이 보류상태”라며 “불교계와 가톨릭계의 입장을 잘 수용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이번 주어사 복원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용주사 신도회는 6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에 주어사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으며 중앙신도회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주어사지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어사 복원, 불교 포용성 알릴 기회”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천주교를 포용한 곳입니다. 원형복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민학기 신도회장은 “주어사는 자비심으로 조정의 탄압을 받던 천주학자들을 보호했던 곳”이라며 “그들과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주어사는 한국 천주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도 이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며 “천진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진암이 천주교 시설로만 복원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민 신도회장은 이어 “주어사에 얽힌 역사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스님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주어사는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 화합의 종교평화의 현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도에 이어 참여한 불자들이 관음정근을 하며 주어사지를 참배하고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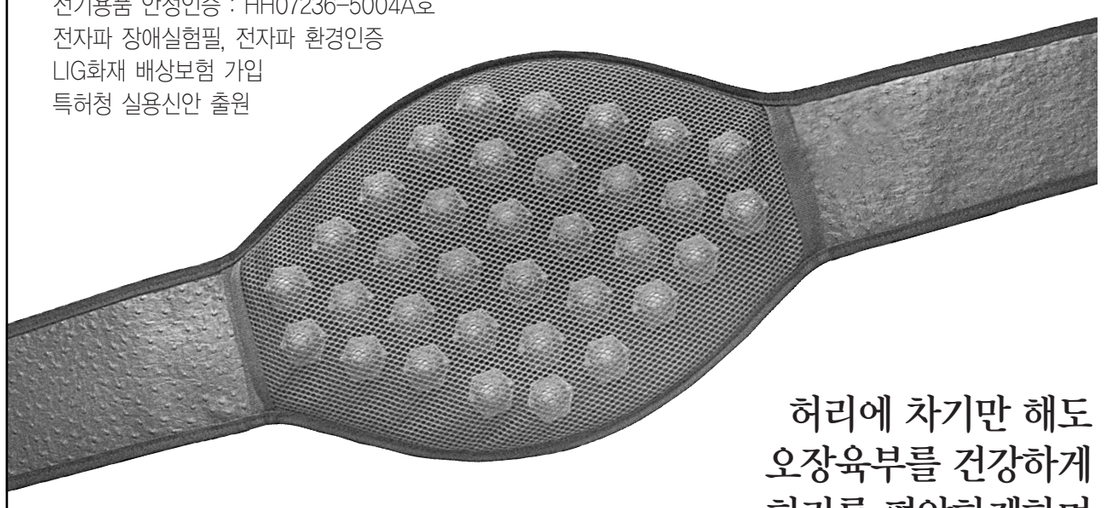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